

윤진섭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창원의 새로운 랜드마크 2016 창원조각비엔날레를 디자인하다

시드니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한국미술평론가협회 고문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전시 총감독(2004년)
K-P.O.P 한국현대미술전 전시 총감독(2014년)
부산비엔날레 학술위원장(2015년)

화려한 이력만큼 2016 창원조각비엔날레
윤진섭 총감독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2016 창원조각비엔날레,
창원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문화예술특별시 창원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까?
윤진섭 총감독은 2016 창원조각비엔날레를
어떤 콘셉트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직접 들었다.

올해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으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창원조각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 등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기존의 국내 비엔날레의 성과에 비취볼 때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비엔날레는 조각을 특화한 비엔날레라는 점에서 다른 비엔날레와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장점 중 하나는 다른 비엔날레들이 전시가 끝나도 작품이 남지 않지만,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작품이 남는다는 점이지요. 이는 또한 요즈음 한창 화두가 되는 공공조각(Public Art)의 측면에서 볼 때 도시 미관의 형성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수에 항구적으로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People

이달의 화제인물



2014년도 창원조각비엔날레 작품(마음의 자리 / 천대광 / 2014, 나무)

기억에 남는 전시회



2000년에 열린 제3회 광주비엔날레에서 [한일현대미술의 단면전]을 기획하던 때가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이 전시는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미술계를 선도했던 모노파와 한국의 단색화를 비교한 것이었는데, 제가 이 전시에서 처음으로 단색화란 용어를 'Dansaekhwa'로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용어를 세계화하기 위해 약 30여 편의 글을 썼지요. 그러다 기회가 찾아왔는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의 단색화전>기획을 위해 저를 큐레이터로 위촉하여 기획자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의 유명 미술관과 갤러리에 서 '단색화(Dansaekhwa)'란 이름으로 전시를 기획하여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색화 열풍이지요.

나만의 전시 스타일



관객과의 소통입니다. 저는 퍼포먼스에 관심이 많은데 퍼포먼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관객참여입니다. 현대 미술에서 관객은 불청객이 아니라 작품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아트의 관객 참여뿐만 아니라 공공조각에서도 관객의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2014년도 창원조각비엔날레 작품(시목(詩木) / 임옥상+송효상 / 2014, 스틸)

이번 비엔날레의 행사장인 용지호수공원의 산책로를 따라 길이 20m, 높이 3m, 폭 1m의 긴 아크릴 벽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여기에 창원 시민들이 산책하러 올 때 집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들을 가져와서 이 통 속에 집어넣는다면 오래지 않아 아크릴 통은 각양각색의 플라스틱 물건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만일 시민들이 이 플라스틱 물건에다 자신의 사인을 남기거나 사연, 혹은 희망하는 바를 적어 넣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시민이 참여하는 훌륭한 공공미술 작품이 될 것입니다. 시민이 작가가 되는 것이지요.

2016 창원조각비엔날레 콘셉트



이번 주제를 ‘억조창생’으로 잡아볼까 합니다. 사극에서 흔히 보듯 임금 앞에서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전하, 억조창생(億兆蒼生)을 굽어살피소서!”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만백성을 굽어살피라는 뜻이지만, 저는 말을 약간 바꿔 ‘억조창생(億造創生)’으로 할까 합니다. “수많은 사물에 생명을 부여한다.”는 뜻이지요. 저는 길거리를 지나가며 버려진 물건들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뭔가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물은 생명을 얻어 반짝거리게 됩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게 아니지요. 이번 비엔날레는 야외전시와 실내전시로 구분되는데, 야외전시는 용지호수공원에서, 실내전시는 성산아트홀에서 열리며, [오브제-물질적 상상력]이란 주제로 오브제를 전문으로 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집중적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2016 창원조각비엔날레 특별함



역시 시민참여가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한 작품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입니다. 이는 시민이 행사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에 그 정신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을 비롯한 매스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만, 가령 학생들이 참여하는 비누 조각 프로젝트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미술수업 시간에 만든 비누 조각을 모아 전시하고 잘 된 작품을 골라 시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창원 시내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약 5천 명에서 만 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는 교육청과 미술 담당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기존의 미술교육 현장을 비엔날레 행사에 끌어 들임으로써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실행될 예정입니다.

창원과 조각의 의미

● ●
창원시는 김종영, 문신과 같은 뛰어난 조각가를 배출한 도시인데요. 뭔가 기묘 전통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한국근현대미술사에서 탁월한 예술적 업적을 이룬 김종영, 문신과 같은 거장을 배출한 창원은 그 자체로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고 계승하여 그러한 전통과 도시의 이미지를 오버랩 시킬 수 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창원하면 예술보다는 공업 도시, 혹은 계획 도시가 연상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이런 전통을 오늘에 되살려 세계적인 조각의 메카로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늘려 말 그대로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을 창원의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안토니 고펠리와 같은 거장들의 작품을 유치하여 랜드마크를 만들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창원의 새로운 랜드마크

● ●
지금문 문화예술의 시대입니다. 세계가 경쟁적으로 문화예술의 콘텐츠 생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류는 그런 가운데 파생된 한국의 새로운 물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경우를 통해 실감했듯이, 한두 사람의 천재가 수백만 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 가운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사회

적 관계망)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문화예술의 콘텐츠를 생산, 전파한다면 창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IMF의 위기에 빠졌을 때 금 모으기 운동이 경제를 살린 것처럼, 창원에 소재를 둔 기업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세계적 거장의 거대한 기념비적 작품(가령 안토니 고펠리 등)을 유치하여 영구 설치한다면 창원은 세계적 도시로 거듭날 수 있지요.

창원과 인연

● ●
창원과는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마산조각공원과 진해 장복산 일대에 조각공원을 만든 일,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우성 김종영, 유택렬 화백의 예술 세계에 관해 학술논문을 발표한 일 등이 떠오릅니다.

“

작가를 비롯하여 큐레이터, 평론가 등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강한 것이 제 장점입니다.

이는 국제미술평론가협회(AICA)의 부회장이로서 쌓은 인맥도 있습니다만, 40여 년에 이르는 오랜 세월 동안 국내외미술계에서 활동하면서 갈고 닦은 노하우가 제 숨겨진 무기입니다.

국제비엔날레는 국내의 인력만으로 되는

행사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협조도

절대적입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국제행사가 우리만의 리그로 그치는 이유는 바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지닌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는 SNS의 열린

공간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공세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주목해 주시고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합니다.

”

글 김봉임 작가



2014년도 창원조각비엔날레 작품(발씻기(洗脚) 외 4점/ 리 짬양(중국) / 합성수지에 채색, 임대)



2014년도 창원조각비엔날레 작품(세 도노사우러스 / 헤리도노(인도네시아) / 2013, 합성수지, 전원장치, 가변설치)